

한국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풀지 회장부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Honolulu, Hawaii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정 쿤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 창 현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48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올해 구 5월6일 금요일	Issue No.	1748
		Date	June 20, 1969, Fri.

부가세 1년 연장안 하원세입위승인

(와싱턴 6월17일발, 에이피) 국회하원세입위원회는 17일, 니슨대통령의 추천한 소득세부가세의 1년연장안을 승인하였다. 세율은 대통령의 추천대로 금년 12월말까지는 현법의 10%를 유지하고 내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5%로 반감한다.

비에드남철퇴미군중 하와이에 7천4백명

(와싱턴 6월17일발, 에이피) 미국방총성은 17일, 비에트남으로부터의 철병병력 2만5천명의 배치 위치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밝혔다.

- 해병대제9현대상륙부대 8천명 오끼나와로
- 제9보병사단사령부와 제1여단 7천4백명 하와이로
- 동사단제2여단과 비사단단위의 수개부대 본국에 복원, 정규군으로서의 근무해제
- 동사단제3여단 계속 비에트남에 주둔
- 해병대전우대대 4백명 7, 8월에 일본으로
- 해군 헌2백명 태평양기지 외 국내근무
- 국민군, 예비역 2천명을 포함하는 8천명 본국으로 복원, 제대 철병병력의 3분의 2는 오끼나와, 일본, 하와이에 배치될것으로, 이것으로 65년이래 비에트남에 동원되어 악해진 후방부대가 다시 충실히게된다. 그의 후방부대는 한국, 타이를 포함하는 국풍에서 비상사태가 생기는 직시로 출동하는 병력이다. 또 국방총성은 이반토에서 동원해제가되는 국민군, 예비역은 17주로부터의 20개부대라고 명백히하였다.

일부는 이미 오끼나와에

해병대의 일부는 이미 오끼나와에 도착하였다는 정보도잇스며, 미국방성대변인 헨린씨는 "이 해병대가 철병의 전위부대인가는 물론다. 그러나 전위의 소병력이 오끼나와, 하와이에 이동하였다고하더라도 나는 놀라지안는다"라고 말하였다.

크리히드전국방장관이 직선 전지상군철퇴 제안

(뉴욕 6월19일발, 공동) 크리히드전국방장관은 워런.아워아스지 7월호에 논문을 내고, "미국은 지금 직시로 비에트남으로부터 철퇴를 시작하여야한다"라고 제안 다음과같이 밝하였다.

- 미국이 취하고있는 미군군사적 행동은 제한이 업을 뿐만아니라 절망적이다. 미군을 이상 대규모로 늘려서 사수도, 편의 목표로부터 멀어져질 뿐이다.

(제2면에 계속)

(제1편으로부터 계속)

1. 미국은 남비에스널과 동국파병제국에 대해서, 미국 10만을 군단까지에 철 의할 것, 또 70년 말까지에 미국의 전지상군을 철 의시킬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철병은 끝 시작하여야 한다.

철병 문제로 장시간 토의, 파리화평회담

(파리 6월 19일 밤, 에이피) 열린 파리 회담 회의는 19일, 철 의문제를 쟁의하고, 문의가 있어서, 6시간 15분이라는 2월이 빼의 장시간을 기록하였는데 아주 진전은 없었다. 윌리미와서 대로는 북비에스널 대로 단에 대해서 “남비에스널 으로부터 철병한 준비가 되어있나”라고 요구하였다는데 대답을 얻지 못하였다. 대방전선을 계승한 남비에스널 입시 협정부 대표단의 대변인은 “의회가 길게 걸린 것은 윌리미 대표가 상호 철병이라는 어리석은 입장을 고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닉슨 대통령 오후에 기자회견

(워싱턴 6월 19일 밤, 에이피) 닉슨 대통령은 미동부 시간 19일 오후 7시에 두 달 만의 기자회견을 한다. 지구 대동령 보도관에 대한, 대통령은 설명을 내지 않고, 풀 질의 응답으로 들어갈 예정. 이 기자회견에서는 (1) 비에스널 철병 문제 (2) 군축 고성의 개시 (3) 국내 경제 위기 등이 문제로 될 것이다.

황내각 불신임을 날비에스널 하천이 가결

(사이판 6월 16일 밤, 공동) 남비에스널 위원은 16일, 한·반·황내각의 불신임 동의를 가결하였다. 아원대변인은 이 불신임 동의는 아우·족·오경제상이 14일 발표한 신경제조의와 중세에 관련에서 제출, 채택된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위원은 규진·바·우은 아원의장에 대해서, 신경제조의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 상하 양원 합동본 회의를 열도록 요청하였는데, 만일 이 양원본 회의가 정부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내각은 해산될 것이다. 황내각은 68년 5월 24일 성립되었는데, 동내각 불신임안을 가결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중동 정세

(이스라엘·델아비부 6월 19일 밤, 에이피) 이스라엘 군당국은 “19일 이스라엘 군 정찰대는 씨리아 고란고지와 가자지대에서 애란의 침입 병 8명을 죽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율단군 19일 밤, 에이피) 율단군 대변인은 “19일 이스라엘 군 점령 기관은 남율단의 가라베, 가우 베인 양촌에 대해서 주민 2명의 공습을 하고, 애란시민 1명이 사망, 6명이 부상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대회의 유탄수상은 동국의 군현대표에게 메세지를 보내고, 18일의 이스라엘 군의 공습에 대해서 안전보장리사회 회의 주의를 달도록 지령하였다. 이 메세지에 의하면, 18일에는 유탄군 7명이 사망, 7명이 부상하고 있다.

갓 키 훗 러 투사 차라파이 체재 연장

(파리파이 아순치온 6월 19일 밤, 에이피) 닉슨 대통령의 특사로서 중남미 방문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타기 우월의 뉴욕지사는 오늘 파리파이에 도착, 명 20일 오후 우루과이 도양에 출발 예정이었는데, 파리파이의 미대사관은 “갓기 우월의 특사의 체재는 21일 아침까지 연기되었다”라고 발표하였다. 대사관에서는 연기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루과이의 라생시 위 때문에이라고 보고 있다.

(제 3 편에 계속)

(제2편으로부터 계속)

파리파이에서는 스도토에스널 대동령의 군사성과 “육사원성”의 준비로 열심인데, 28회 대학원 단체는 “육사의 사령은 세도운 웃을 입은 미제국주의이다”라고 성명을 맺기 위해 육사와 스도토에스널 대동령의 의견이 거행될 20일, 공포할 예정이다.

사도수상·문형태 한국 합동 참모회의 의장 회담

(동경 6월 19일 밤, 공동) 일본방문 중의 한국의 문형태 합동 참모 회의 의장은 19일 오후 주상관처도 사도수상을 표경방문하고 회담하였다. 서상 문의장은 아마마쓰, 오구스가의 자위대기지를 방문한 인상으로서 “한국에서는 일반인도 공산주의와 사우고 있는 데, 일본은 평화증 경제도 범영하고 있어서 부럽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서 사도수상은 “그 의미는 잘안다. 일본은 공산주의와 사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위대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문의장은 또 오끼나와 문제에 대해서 “북조선은 중공, 소련의 후방기지가 있지만, 한국에는 그것이 있는 것을 생각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중공이 가까이 대륙 단도란 실험 할 것

(톈진 6월 16일 밤, 공동) 영지 사단데이·라이스가 15일 오스트레리아의 기자 후멘시스·제임스씨의 서명기사로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중공은 사정 9천 킬로의 핵미사일을 생산 중이며 가까이 반사 실험을 한 예정이라고 한다. 동시에 규난초에, 서쪽의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오두막과 부근에 있는 중공의 핵실험장을 방문, 미사일과 핵폭탄 공장의 사진을 찰영하였다. 사단데이·라이스씨에 제재된 사진은 중공의 최고 기밀의 시설을 찰영한 것으로서, 처음의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학과의 말로, 중공은 1970년대에는 제2핵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란서 신 대통령에 폰도도씨 압승

(파리 6월 16일 밤, 에이피) 15일에 거행된 불란서 대통령 선거의 결선 두 투표에서는, 불란서 본도전 구와 해외영토의 일부의 집계의 결과 폴주·폰도도 투표가 57.78 대 42.22의 득표율로 앤센·포엘 투표에 압승하였다. 이 득표는 65년의 선거에 있어서서 드풀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초과하는 것이다. 25년간 드풀의 뒤에 있든 폰도도시는 드디어 드풀 후의 불란서를 영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권자 2천 9백 50만 중 기권율이 31%라는 낮은 율이 주목된다. 공산당은 제1당 선거에 동당의 류크로우보가 패배된 후 결선 투표에 기권하도록 호소하고 있었다. 드풀 대통령은 아이랜드의 정당으로부터 “국민으로서 또 일개인으로서 심심으로 당선을 축하한다”라고 축전을 보냈다. 폰도도시는 제일성으로서 “오늘의 우승 결과는 드풀 원수에 의해서 행하여진 위대한 체제개혁의 기초가 평고이 되고, 전당이 완성된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불란서의 헌법위원회는 19일 밤 선거의 결과를 정식으로 발표, 폰도도시는 20일 대통령에 취임, 20일부터 22일에 걸쳐서 신내각을 조직한다. 수상에는 사반델마 불란서 아원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폰도도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드풀로선을 따르는 한편, 유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의 토론을 허하고, 신정부에 새로운 인물과 사상을 있다고 공약하고 있다.

폰도도시의 약력... 1911년 7월에 출생, 고등학교 교사를 한 후 재무부에 들어가, 50년 파리·오스차일드은행총재, 58-59년 드풀 수상의 비서실장이 되어 드풀의 유능한 협력자가 되었다. 62년 4월 수상, 지난 5월 위기에 드풀파의 유일한 강력한 추진자로서 선거를 성공시키고 위기를 넘었는 7월 드풀이 수상의 지위로 부터 파면되었다. 드풀이 폰도도의 인기를 두려워하였다 고하는 것도 있고, 드풀이 폰도도를 자기의 후계자로 하기 위해 일시 학아시카고, 정치행동의 자유를 준것으로도 보인다.



인권문제는 반환후에오끼나와 일체화 계획안을 승인

(불경 6월 19일밤, 광동) 오끼나와 문제 등 라담회 (수상의 자문기관, 오아마노부모로 회장)는 19일 오후 인체파초 위원회를 열고, 용비부가 표시한 "본토와 오끼나와의 일체화 3개년계획안"의 초안을 승인하였다. 이 충의부안은, 본토와 오끼나와의 인체 파우진에 있어서의 재문제를 (1) 조급히 차수할 것 (2) 시정권반환까지에 순차로 수속할 것 (3) 반환후에 경기조회로서 취급할 것 외 5단계에 분류하고, 우선 제1, 제2단계에서는 고속재로, 일정 재정 경제개발, 국민 보험, 생활보호등 사회 부사제도면의 일련업체화세 중점을 두고, 반환후의 제3단계에서 재판제도 혼화의 변경, 재산문제를 취급하게 되어 있다. 현지에서 관심이 깊은 인권문제는 제5단계에서 있으며, 금우 문의 절것으로 보인다.

아풀로 11호의 3비행사지구방역 우해 각리조사

(화성은 6월 17일밤, 광동) 아풀로 11호가 달세자로부터 어느 세균을 가져와, 이것으로 지상이 오염되기를 방지하기 위해, 미암공우주국은 천에 업은 오염방지작전을 세우고 있다. 16일, 미암공우주국이 명백히 안내하였듯, 달로부터 돌아온 3인의 우주비행사는 영웅을 마지마는 칭송보다는 지구를 더럽히는 "위험인물"이라는 취급으로, 육별연구소내에서 차수부로부터 18일간은 원천한 차리상태에 둔다. 이것은 사령선이 가져온 원천물질도 마찬가지로, 역사상 최대의 방역체계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달면상에는 공기도 물도 없다고 하며, 주야의 온도의 차가 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생물이 살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탐광우주국이 거관한 달착륙비행사와 가서를 달면 물질을 섭취하여 차리체계에서 권리알려는 것은 만일 상상을 넘은 미생물이 월면에 있음을 대비한 예방대책이다. 지구상에서도 공기입시 사는 미생물은 존재한다. 공기가 있다고해서 절대로 세균이 살지 않는다고는 할수 없다. 또 달면에는 어둠의 상태로 물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보는 학파도 있고, 달면의 1미터까지는 주야로 영하 2, 30도라고 생각하는 학파도 있다. 이정도의 온도라면 지구상에서도 충분히 미생물이 살수 있다. 따라서 지구상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면 달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것이 지구상에 침입하면 조건이 다른 지구상에서 물질이 대량화하여 미지의 병이肆문지로 모른다.

사망

아와이 인도설에서 탄연 사신이 여관을 경영하시던 김성남씨는 속환으로 4월 20일에 81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장례식은 30일 일요기념장의 소에서 출관하여 오후 4시에 안시흡족사님의 주례 아래 일오백인까지에 안장되었다고 한다.

대안 부산에서 삼고계시든 김우수씨는 5월 6일에 미인조로 출가때도마에 본향 김주수여사(뉴님) 댁에서 거절 중 지난 15일(일요일)에 가족들과 친지와 아파도이나 풍원출지나, 가미오마니와 애수 옥장근처에서 소작을 저녁식사시까지 김우수씨의 장남 김일원군이 돌아오지 안어서, 찻잔을 애수옥장강시 원회 도움으로 김일원군의 시체를 물속에서 발견하였다는데, 익자간시간이 늦어서 김군의 생명을 구원치 못하였다고 한다. 김군의 장례식은 18일 오후 9시부터 11시반까지 보스워에서 개관조의식과 김치현목사님의 주례하에 영결식을 거행한 후 밤인하여 오아우기념공원폐장지에 안장되었다.

